

THE PIANO

No.425 2017.08

The Best Publication in Piano Music

피아노음악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7

사제동행: 음악가의 길을 함께 걷다

문용희 & 탁영아

FROM SNS 피아니스트 손열음

지상레슨 J.S. 바흐의 <평균율 제1권 제10~12번, BWV 855~857>

시즌기획 탄생 및 서거주기 맞은 음악가들과 함께 떠나는 테마 여행

9 771227 241002 08
ISSN 1227-2418



사제동행: 음악가의 길을 함께 걷다

문용희 & 탁영아

예술은 보통 도제교육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맥을 이어간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예술만큼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는 그리 흔치 않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그 질문에 피아니스트 문용희, 탁영아가 함께 답했다.

반가운 두 손님

“똑똑.”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반갑게도 월간 <피아노음악>의 문을 두드렸다. 그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문용희와 탁영아다. 2013년 8월호 <피아노음악> 표지에 피아니스트 정진우와 더불어 그의 제자들 피아니스트 김용배, 김영호, 임종필, 윤철희가 등장했던 이후로 4년 만에 사제기간인 피아니스트들이 다시 <피아노음악> 표지를 장식했다.

피아니스트 문용희는 15년간 미시간 주립음대에서 교수직을 역임 후, 2002년부터 현재까지 피바디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 세계를 오가며 연주와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다. 그녀는 먼저 “<피아노음악>의 표지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소감과 함께 근황을 전해왔다.

“6월 초에는 미국 플로리다 대학이 주최하는 피아노 페스티벌에 참여했고, 3년째 참석하는 신시내티 음대의 ‘Art of Piano Festival’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대욱 선생과 함께 가서 각자 마스터클래스도 하고, 함께 두오 리사이틀도 가졌습니다. 7월에는 메인주 ‘Bowdoi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에 3주 동안 참석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해마다 이 행사에 참가했는데, 특히 작년부터는 제 아들 Nelson의 주피터 현악 4중주단(Jupiter String Quartet)이 상주 콰르텟으로 합류하게 되어서 기대되는 가족행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오스트리아의 바트 가슈타인(Bad Gastein)에서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

주곡> 연주와 마스터클래스가, 독일 슈리츠(Schlitz)의 ‘Pianale International Piano Academy & Competition’에서 연주와 마스터클래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문용희)

미국 사우스이스턴 대학 음대 교수를 거쳐 지난해 뉴욕주립대 팻스담 음대(Crane School of Music)에 전공교수로 임용되어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탁영아. 그녀 또한 연주와 교육 활동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6월에는 제가 상주 음악가(Artist-in-Residence)로 있는 사우스이스턴 음대의 페스티벌에서 연주 겸 티칭을 했고, 7월에는 제가 재직 중인 뉴욕주립대 팻스담 음대에서 열리는 고등학생 대상의 음악캠프, ‘Crane Youth Music Camp’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요. 이 일정 후 7월 말에는 펜실베이니아주 ‘APF | SBI’ 피아노 페스티벌에서 2주 동안 교수진으로 활동하며 솔로와 실내악 등을 연주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스타인웨이 스피리오(Spirio) 피아노 카탈로그에 제 레코딩이 등록되었고, 그 후에 스타인웨이 레이블에서 정식으로 CD 녹음을 제의받았어요. 현재 프로그램을 의논하는 중이며, 올해 말 즈음에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음반 작업도 연주와 교육활동 외에 제가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무엇보다도 <피아노음악> 애독자인데, 문용희 선생님과 함께 <피아노음악>의 8월호 표지 인물로 선정되어 영광이고, 제게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뷰를 통해 문용희 선생님과 추억을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탁영아)



지난날의 소중한 추억

어느덧 20여 년. 이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문용희와 탁영아는 첫 만남의 순간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탁 선생이 아마 열세 살 정도였을 때 제가 한국을 잠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탁 선생의 피아노 연주를 들을 기회가 있었지요. 탁 선생이 나이에 비해 놀랍게 성숙하며 이른 나이에 자신이 음악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문용희)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 겨울에 문용희 선생님을 처음 만나 뵈었지요. 저는 그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경원대(현 가천대) 교수로 계실 때였지요. 저는 처음 뵈는 거라 선생님에 대해 잘 몰랐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밝게 활짝 웃으시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그날 따뜻했

던 선생님의 모습이 어찌나 인상적이었는지, 선생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과 머리 모양까지 그려지네요. 저는 선생님 앞에서 하이든 소나타를 연주했고, 선생님께서는 제게 들으며 치는 것에 대해, 또 팔과 손을 쓰는 테크닉에 관한 것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레슨에서부터 선생님께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연’이나 ‘운명’과 같은 연결 끈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탁영아)

이처럼 문용희는 어린 탁영아의 뛰어난 실력을 첫 만남에서부터 인지했고, 탁영아 또한 문용희가 자신의 평생 스승이 되어주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직감했다. 탁영아는 서울예고 1학년 재학하던 중 문용희의 제자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두 연주자는 스승과 제자로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 인연은 두 사람의 삶과 음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으로 가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더욱 선생님을 인간적으로 잘 알게 되었고, 또 가까워졌어요. 그때 저는 아직 어리기도 했고 미국 생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선생님께 많이 의지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저를 레슨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도 세심하게 이끌며 영향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차를 운전할 때 문용희 선생님께서 옆 좌석에 타신 적이 있는데,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핸들 잡는 모양을 고쳐주시며 그런 습관들이 피아노를 칠 때에도 손 모양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또 제가 유학 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슈퍼마켓에 갔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늦게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께 어찌나 혼났던지... 그때 처음으로 선생님이 무섭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웃음).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과 함께 피서 디스카우, 에드윈 피서, 미켈란젤리와 같은 음악가들의 음반을 들으며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던 기억들도 참 소중한게 남아있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곰국을 손수 끓여주시기도 했고요. 문용희 선생님은 제겐 스승이자 마치 어머니 같은 분이시지요. 언제 봐어도 편하고, 마치 항상 저를 잘 이해해주실 것 같은 느낌

이 들어요. 무엇보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도, 지금도 항상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사실, 제가 선생님과 나누지 못하는 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까우면서도 아직도 선생님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지요. 높게만 느껴지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 아닐까요. 문용희, 이대욱 선생님 부부는 제 미국 생활의 시작부터 버팀목 같은, 부모님 같은 존재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두 분이 보여주시는 음악과 삶에 대한 열정, 양심 그리고 따뜻함은 제가 음악인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고, 항상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탁영아)

“우리의 첫 만남 이후, 제가 피바디 음대 교수로 부임하기 전에 재직했던 미시간 대학에 있을 때 탁영아 선생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고등학생이었던 탁 선생은 저와 공부를 시작했지요. 한번은 제가 탁 선생 집에 방문해서 레슨을 하는데, 피아노 옆 벽에 제가 그동안 이야기해준 연습 방법에 대한 글이 새까맣게 쓰여 있는 걸 보고 놀란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탁 선생은 열정이 가득한 제자였어요.”(문용희)

관록의 피아니스트 문용희와 걸출한 피아니스트 탁영아. 스승을 보면 그의 제자를 알 수 있고, 제자를 보면 그의 스승을 알 수 있다. 사제관계인 문용희와 탁영아가 들려준 이 추억담 만으로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스승이고 어떤 제자일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제, 무대 위에서 합을 맞추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처럼, 때로는 동료처럼 음악을 함께 나눴던 문용희와 탁영아가 그동안 사제기간으로서 공유해온 음악을 이제 관객과도 함께 나누려고 한다. 오는 9월 5일, ‘음연 초청, 피아니스트 문용희 & 탁영아의 함께 가는 길’ 리사이틀을 통해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음악으로 가득 메울 예정이다.

사실, 두 사람이 연주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나누는 꽤 오래 되었다고 한다. 몇 년 전 을숙도문화회관의 공연에 초청되어 함께 연주할 기회가 있었고, 준비와 연주 과정 등 모든 것이 참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는 탁영아. 그 후에도 여러 번 다른 곳에서도 스승과 함께 연주하고 음악을 관객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서로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여의치가 없었다고. 이것은 이번 서울에서의 연주가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함께 연주하지는 아이디어는 탁영아 선생이 내셨지만 저도 기꺼이 동의했지요. 이제는 스승과 제자 관계를 떠나 젊은 동료이며 친구가 된 탁 선생과 같이 무대에 선다는 것은 저로서도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처음으로 함께 연주했던 것도 매우 감명 깊었습니다. 탁영아 선생의 고향에서 하게 된 연주여서 더욱 뜻이 깊었습니다.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제자와 같이 연주하는 일은 감탄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요. 오랫동안 나누어 온 예술적인 대화를 연주를 통해서 다시 살리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고요.”(문용희)

“이번 연주회를 앞두고 설레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한편으론 부담도 되고요. 선생님과 오래된 인연이고, 또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음악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선생님과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서로 잘 통하고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되어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음악이니 무언가 더 깊이 있는 연주, 잘 소통하는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몇 년 전에는 저의 스승이신 김영호 선생님과 아마하 그랜드 페어에서 듀오 연주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스승들과 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자체가 특별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탁영아)

연주회 프로그램을 보면 문용희와 탁영아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바흐, 슈베르트, 드보르작, 모차르트, 차이콥스키까지 다채로운 음악들이 두 피아니스트의 손끝에서 형형색색의 꽃으로 활짝 피어날 것 같다. 문용희는 모차르트나 슈베르트와 같은 기본적인 듀오 레퍼토리와 바빈(Babin)이 편곡한 차이콥스키의 곡같이 흔히 연주되지 않는 곡들을 함께 선보이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의 작품은 그녀가 오랫동안 여러 번 연주했고 좋아하는 곡들이다. 탁영아 또한 슈베르트의 작품은 스승과 함께 꼭 함께 연주해보고 싶었던 곡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두 연주자가 이렇듯 정성스럽게, 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 음악회를 관객은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맛보기만 하면 된다. 사랑으로 빚어진 그 맛은 연주자와 관객 모두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

함께 걷는 아름다운 길

어릴 때부터 보아온 제자가 어엿한 성인이 되어 독립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스승의 기분은 과연 어떨까. 또, 하늘과 같은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은 제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피아니스트 탁영아는 한 사람의 피아니스트로서, 교육자로서 자신의 스승 문용희가 걸어 온, 그리고 걸어가는 길을 이제는 함께 걷고 있다.

“물론 보람 있고 뿌듯한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제자가 이 정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동등한 동료로서 존경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때문에 훌륭한 연주가로 성장한 제자들과 같이 연주하는 일도 무척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젊은 연주자와 같이 무대에 함께 서는 것도 신나는(exciting) 경험입니다.”(문용희)

YONG HI MOON

from 문용희 to 탁영아

여성 음악가로서 어려운 길을 걷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정을 충실히 꾸어가는 무거운 책임까지도
힘 있게 잘 이행하는 영아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네게,
화이팅!



“피아니스트와 교육자의 길을 함께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뚜렷한 주체성과 집중력, 밸런스가 필요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배움이 함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생님의 삶을 보며 그런 점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지요. 어릴 적부터 선생님께 배웠던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피아노 옆에 붙여놓고 연습할 정도로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컸고, 음악가로서의 믿음과 존경을 쌓아갔지요. 결국 그런 과정에서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선생님과 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탁영아)

탁영아는 자신의 스승 문용희처럼 피아니스트와 교육자의 길을 함께 걷고 싶었던 것이 삶의 목표였고, 그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음악은 결국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자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하는 그녀. 문용희 또한 자신이 가는 길을 함께 걷고 있는 탁영아가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다.

“탁영아 선생은 대단히 우수한 두뇌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저의 피바디 동료 중 한 음악학 교수가 탁영아 씨는 천재라고 서슴지 않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탁월한 기교를 지닌 우수한 피아니스트이면서 음악의 복잡한 콘셉트를 명확히 터득하는 능력이 있는 훌륭한 음악가이고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본인 자신이 교육자 입장이 되어서 피아니스트로서 가진 철저한 직업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탁 선생은 좋은 후진을 많이 배출할 거라고 믿습니다.”(문용희)

탁영아는 학생 시절, 스승이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것들 가운데, 스승과 같은 길을 걷게 된 이제야 비로소 이해되고 동감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었다.

“학생 하나하나를 모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알아가는 것 등이 문용희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제일 큰 영향인 것 같아요. 피아노만 잘 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여러 가지 지식을 두루 갖추고 성숙된 음악가이자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애정을 갖고 학생들을 알아가고 각 개인의 성격, 재능, 환경, 장단점을 아주 잘 파악해야겠지요. 문용희 선생님께선 그런 능력이 뛰어나셨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이 참 흥미롭고 즐거워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음악가라는 길을 걷는 것은 멀고도 심도 있는 여행이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간 지 얼마 안 되어 랜싱 심포니 오디션에 합격하여 연주를 앞두고 있었는데, 연주 직전 지휘자가 연주전 무대 위 청중 앞에서 저와 대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영어를 하는 것도 서툴렀고, 특히 큰 무대에서 대화를 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무대 뒤에서 선생님께 무작정 여쭙었죠. “선생님! 혹시 지휘자가 음악을 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운지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좋은 대답일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를 보며 짧게 말씀하시더군요. “Being patient!” 끈기, 인내!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지혜롭게 넘기며 음악을 중심으로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 이는 음악가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정말 필요한 태도 아닌가요? 그때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보니 그 단어 안에는 또 수많은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더군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



YOUNG-AH TAK

from 탁영아 to 문용희

선생님께서 제 삶에 계셔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제가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이제까지
계속 잘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을 만난 것은 제 삶에서 큰 행운이었고,
선생님은 제게 항상 힘과 영감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해 나아가는 음악가,
성실하고 진실한 음악가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어요. 20여 년 전에 무대 뒤에서 들었던 그 짧은 단어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도 그 크고 깊은 의미에 대해, 음악가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조금씩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노력하지요. 또한 이렇게 멀고 쉽지 않은 길을 가면서, 그동안 문용희 선생님을 비롯하여 제게 가르침을 주신 저의 스승 모두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선생님 복이 참 많았지요. 그분들 없이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고, 또한 제 학생들과 음악과 인생 안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나눔이라는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없었겠지요.”(탁영아)

탁영아의 답변에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라는 노래 가사가 절로 생각난다. 모든 훌륭한 스승들이 그러했듯, 문용희가 탁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연 끝이 없는 듯하다.

“한국에서는 8월 18일에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실내악 연주를, 9월 5일에는 문용희 선생님과 의 듀오 연주를 선보이고, 그 후에는 미국 뉴욕주의 알바니에 있는 쇼팽 콩쿠르의 심사와 더불어 학교에서 동료들과의 실내악 연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플로리다에서 독주회와 사우스이스턴 대학에서의 마스터클래스 및 강의를 하고, 또한 제가 재직 중인 학교 오케스트라(Crane Symphony Orchestra)와 슈만 콘체르토 협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레코딩 스케줄이 있고요.”(탁영아)

다가오는 가을부터는 피아노 음대에서 피아노과 과장직을 맡게 되어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더 큰 힘을 쏟게 되었다는 문용희. 그리고 작년부터 뉴욕주립대 음대 교수로 부임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한편,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주활동도 활발하

게 선보일 거라는 탁영아. 이번 듀오 연주회 이후에도 그녀들이 보여줄 행보가 기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제가 함께 그려가는 미래는 더더욱 그렇다.

“같이 음악학교에서 일하면서 계속 대화하고 서로 조언하면서 각자의 맡은 일에 충실하도록 해야겠지요. 또 이번 연주회 이후에도 반드시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도록 노력하려 합니다.”(문용희)

“선생님과 제가 지금처럼 항상 같이 얘기하고 의논할 수 있고, 또 음악 안에서 솔직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선생님과 음악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 미래에 여름 페스티벌을 구상 중이기도 한데, 성사된다면 선생님을 교수진으로 모셔와 여러 학생들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봄학기에 선생님을 게스트 아티스트로 뉴욕주립대 팻츠담 음대에 모셨고, 선생님께서 마스터클래스와 독주회를 하셨는데 정말 뜻 깊은 경험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제가 음악활동을 계속하는 이상, 항상 여러 가지 가능성(possibility)이 있다고 생각해요.”(탁영아)

삶에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 사제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참으로 아름답다.

글·심세나 편집장

음연 초청 피아니스트 문용희 & 탁영아의 함께 가는 길

일시: 9월 5일(화)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곡목: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K.448> 외